

한국 문화유산 속의 인문정신과 세계화

이배용

1.

한국에서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경쟁 논리에 밀려 한동안 인문학이 소외되는 사회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문학에 대한 열기와 더불어 인문 정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 해 전 대한민국 정부가 ‘인문 정신문화 진흥’을 선언하고, 인문학 진흥을 통한 문화융성과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사회 곳곳에서 인문학 강좌와 축제가 열리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도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품격 있는 선진국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뿐이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인문 정신적 문화와 가치를 가진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문화를 이끌어온 동서양 여러 나라의 인문정신을 탐구하고 수용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만, 한편으로는 그 정신을 한국의 역사 속에서 찾는 지혜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문정신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곳곳에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역사문화 속의 인문정신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2.

한국의 문화유산은 한국인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가꾸어 온 인문정신의 정수를 오늘날의 세계인들에게 전해주는 세계의 인문적 자산입니다. 한국의 문화유산 속에서 미래의 세계 인문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편성과 세계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의 문화유산은 그 문화가 소통과 화합의 인문정신을 기본으로 하며 조화를 이루어 왔다는 점을 알게 합니다.

소통과 화합의 정신을 실천한 대표적 인물로는 신라시대 선덕여왕(? ~ 647, 재위 632 ~ 647) 을 들 수 있습니다. 선덕 여왕은 동양 최초의 천문관측

대로 알려진 첨성대를 건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첨성대는 뛰어난 과학 문화 유산이라는 점뿐 아니라, 백성들의 농사를 도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배려의 마음에서 탄생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더 큰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문화유산은 그 문화가 인간주의 정신으로 희망의 세계를 제시해 왔음을 알게 합니다.

조선의 제4대 임금인 세종대왕(1396~1450, 재위 1418~1450)은 조선이 지향하고 있던 유교적 인간주의의 이상을 실제 정책에 성공적으로 구현한 최고의 리더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한국 사람들의 말과 중국 말이 서로 다르며, 한자를 사용하는 데서 겪는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글이라는 과학적 문화유산이 탄생하게 된 것은 백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그리고 말과 글자가 다른 모순을 정리한 합리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셋째, 한국의 문화유산은 그 문화가 자연과 인간 사이의 소통과 조화를 추구하여 왔음을 알게 합니다.

16세기에 살았던 신사임당(1504~1551)은 그림, 글씨, 학문, 바느질, 자수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의 대학자인 율곡 이이 선생의 어머니로 자녀를 훌륭하게 교육하였다는 점에서도 유명합니다.

그의 회화 작품에는 꽃, 채소, 과일, 곤충 등 자연의 모습을 세밀하게 담은 그림들이 많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 그가 꽃 한 송이, 곤충 한 마리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밀한 관찰을 통해 자연을 묘사하고, 자연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소망을 예술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작은 미물이라도 생명을 존중하며 자연을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호흡하며 살아갔던 사임당의 마음은 사실상 전통시대 한국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을 세우거나 정원을 꾸밀 때에도 반드시 자연과의 조화를 우선시하였습니다. 과도한 인공조경을 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해석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하나 되는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넷째, 역사 속에 등장했던 여러 인물들을 삶으로 전해지는 한국의 정신문화

유산은 나눔과 베품, 배려의 정신, 즉 인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의 실천이 그 중심에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조선 후기 제주 여성 만덕(1739~1812)의 일생은 바로 나누고 배려하는 삶의 대표적 표상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정조 20년 기사에는 제주 기생 만덕이 재물을 풀어 굶주리는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였다는 내용이 전합니다. 만덕은 11세에 부모님을 여의었으나 장사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제주에 커다란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아 수 천 명의 목숨을 구제하였습니다. 한국 역사의 빛나는 서예가이자 금석학자인 추사 김정희는 만덕의 선행을 일컬어 은광연세(恩光衍世), 즉 "은혜의 빛으로 세상을 밝혔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3.

21세기의 사회는 예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활자 매체로 소통하던 시대가 바뀌어 스마트폰, SNS 등 디지털, 네트워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활자 매체가 권위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향하는 일방적 매체였던 반면, 디지털 네트워크는 누구나 중심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소통의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21세기 사회의 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보아야 할 점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가 힘으로 경쟁하고, 혼자서 독존하기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세계를 지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유산 속에 담긴 인문정신은 오늘의 세계가 추구하는 지구적 미래 가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가 나아가는 그 길에 동참하고, 나아가 그 방향을 이끌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한국학에 몸담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인문정신의 가치와 지혜를 진정성 있는 탐구력을 가지고 한국의 역사 속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고전 자료에 대한 연구를 하되,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물으면서 연구해야 합니다. 고전 자료에 대한 연구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정신적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한국 역사문화 속에 든 인문정신을 가지고 현대인과 소통할 뿐 아니라, 세계인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대중문화의 한류에 주목하고 있지만, 고품격의 학술 한류, 전통 한류도 꽃피울 수 있습니다. 한국학의 고전 자료 속에서 세계와 공유하고,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지식을 찾아 외국어로 번역해서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한국학은 지역학이 아니라, 보편적 학문으로서 정립되고, 세계인들이 그 속에서 오래된 미래를 열어 갈 비전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한국 역사문화 속에 새겨진 인문정신을 한국학의 대중화를 통해 보급하고 확산하는 것입니다. 한국학 연구자들은 열린 자세로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스토리텔링, 드라마, 공연 전시 기획 등에 종사하는 문화 예술분야 전문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한국학의 지식을 알리고, 그들의 창작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서 전문성의 벽을 넘어서는 지식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신뢰 속에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화합과 소통의 정신, 인간에 대한 존중과 따뜻한 진정성, 인간과 자연의 조화, 나눔과 베품의 정신, 한국 문화 속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이러한 정신적 유산이 인류의 미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석학들과 신진 연구자들께서 하시는 한국학 연구가 그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The Humanistic Spirits in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and Its Globalization

Lee, Bae Yong

Korea's cultural heritages are the essence of the humanistic spirit that Koreans have developed through their history, and this is an important part of the world's humanistic asset.

We should endeavour to find the universality in the Korean cultural heritages, which can contribute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humanities of the mankind.

Spirit of communication and harmony



善德女王

Queen Seondeok

? - 647, r. 632 - 647



瞻星臺

Cheomseongdae Observa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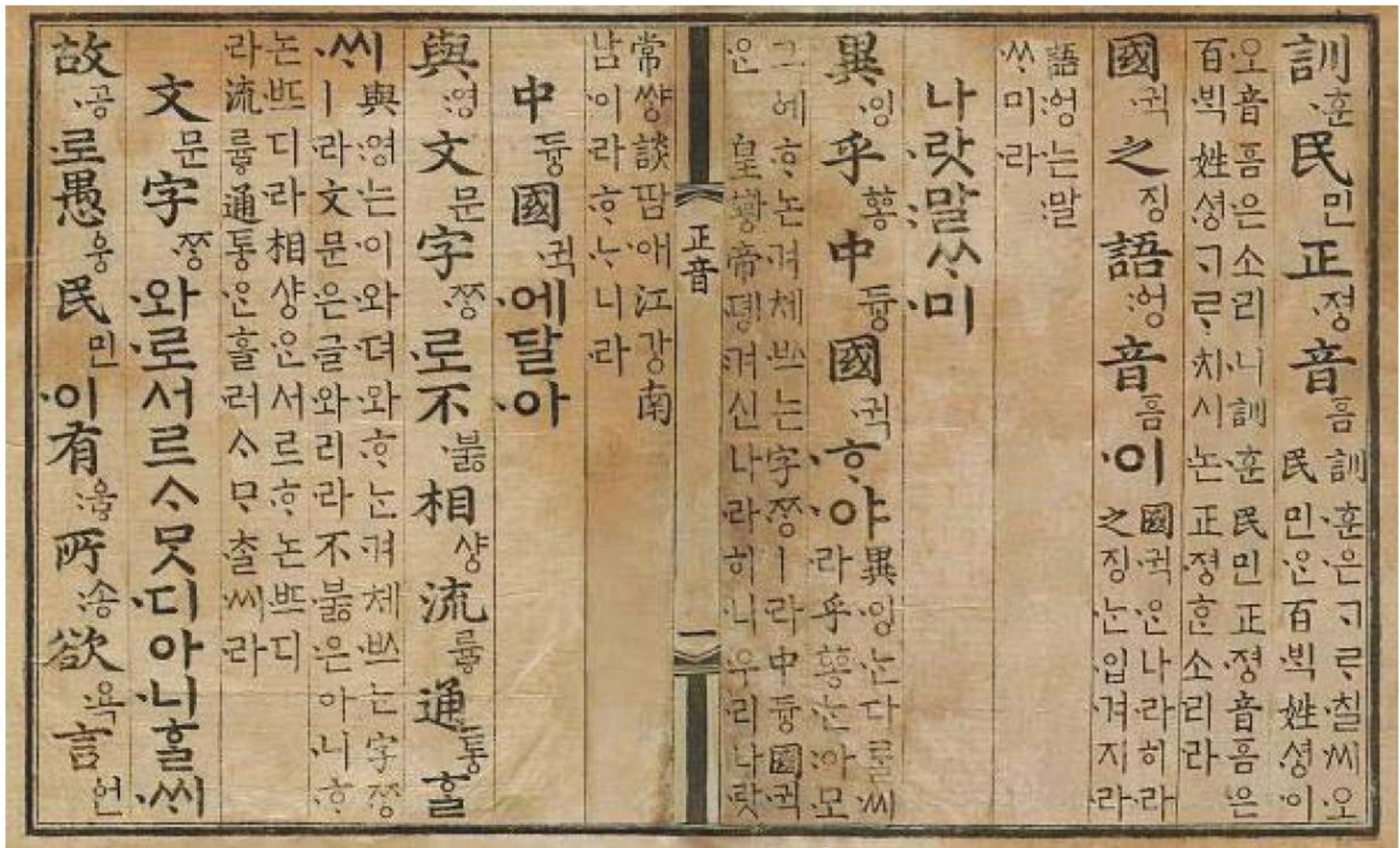
Respect for all humans; humanitarianism



世宗大王

King Sejong

1396~1450, r. 1418~1450



訓民正音

Hunminjeongeum

(The Proper Sounds for the Instruction of the People)

Harmony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nature and human beings;



申師任堂

Shin Saimdang

1504 – 1551



草蟲圖

Paintings of Plants and Insects by Shin Saimdang

Spirit of sharing and benevolence



金萬德

Kim mandeok

1739 - 1812



Kim Mandeok, having audience with King Jeongjo (1796)

“The humanistic spirit developed in Korean culture is not different from the futuristic values that today’s world are pursuing.”

Tasks of Korean Studies to contribute further to the cultural development of the world:

- While studying the classical culture of Korea, we need to ask ourselves what meaning it carries to us in today's world (modernisation of the Korean classics);
- In Korea's cultural heritage we need to find the knowledge about the values, which the world can agree, and translate them into foreign languages so that we can communicate with the world (globalisation of the Korean classics);
- We need to endeavour to spread the humanistic values of the Korean history and culture for the general public (popularisation of the Korean classics).